

SENIOR 조선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DECEMBER
2013
VOL.20

Come Inside

5060세대의 추억 키워드
응답하라 1980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서비스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다



VI^oSPRING
by INFINI

고고한 신념은 존경을 부른다
사람도, 차도 그러하다

ALL NEW LS

38일 간, 67가지 손길로 완성되는 시마모쿠 스티어링 휠,
체온 변화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클라이밋 컨시어지,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4륜구동 시스템까지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완성된다



inside

VOL.20 DECEMBER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10

06 ESSAY 봄꽃만큼 가을 단풍

나이를 먹는다는 건 미냥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흑자는 나이가 재산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시인 이감수의 '나이 예찬'.

08 THIS MAN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

서울대 총장에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 이제 그는 이구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 정운찬 이야기.

10 MEMORIES 응답하라 1980

다시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기장 반색하며 맞을 5060 세대를 위해 준비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 주인의 키워드.

12 PEOPLE 2013년을 보내며

비쁘고 힘든 한 해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이들에게 2013년을 설명할 한 가지를 물었다.

14 LOOK 클래식 체크의 향연

유행을 타지 않는 고전적인 체크프린트는 수수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겨울에 더 매력적인 남자 위한 필수 체크 아이템.

15 ENTERPRISER '바이스프링' 오너 라파엘 곤잘레스 베데로

최근 기구 팬들 사이에서 부쩍 입소문을 토고 있는 영국 프리미엄 침대 바이스프링(Vi-Spring). 때마침 스페인에 거주하는 바이스프링의 오너가 잠시 서울을 찾았다.

16 JOY OF LIFE 남성미의 극치, 펜싱

칼의 우아한 곡선과 그 곡선을 그리는 날렵한 몸짓…,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 멋과 품위까지 갖춘 펜싱은 '신사의 스포츠'란 수식 그 자체.

17 LIVING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

하몰라가 한국에 소개된 지 15년, 그동안 하몰라는 한국의 대표 수입 소파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 비결은 뭘까?

18 TRAVEL 부담없는 한국 여행의 묘미

최근 각 지자체가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여행지 여건이 더없이 좋아졌다. 마음이 동할 때면 맘설임 없이 떠나보자.

20 SENIOR CARE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서비스 체험 후기

편찮으신 부모님을 긴호하느라 정착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눈여겨볼 것. 이것이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

22 INSIGHT 2030년 시니어 라이프

미래 시니어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2030 대답한 미래〉의 저자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에게 듣는 2030년 시니어 라이프.

23 INSURANCE 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

많은 이들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CI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24 INFOPACK '찾아가는 닉터콘서트' 외

'찾아가는 닉터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치매를 주제로 펼쳐졌고, 일흔이 넘은 배우 김혜자가 혼자 연극 무대에 섰다. 그 화제의 현장 속으로!

26 BULLETIN 이달의 소식

발효 흡모 여과물을 88% 이상 함유한 프리미엄 비누 '나티보', 올림푸스의 전천후 미러리스 카메라 'OM-D E-M1'가 출시됐다. 이밖에 알아두면 좋은 일자 정보들도.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l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b@yourstage.com
박철진 soook49@naver.com
C.영상미디어
디자인 별디자인
미술교정 봉수연 swimingb@naver.com
교열 이은실 jakup27@daum.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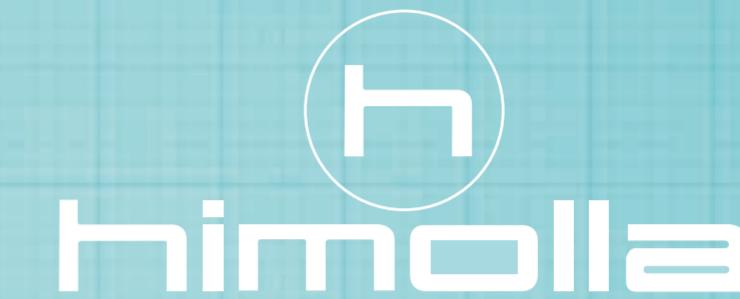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 세종대로 21길 30
인쇄 (주)미디어티피에스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등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한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 조선일보 디자이너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SENIOR 조선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탑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하몰라가 쉼의 각도를 찾았다

개인의 신체리듬과 몸의 구조에

인체공학 설계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편안함이 된다.

1°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지는 정확한 휴식.

하몰라와 하몰라가 아닌 것의 차이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 하몰라가 조화되는 공간까지 생각한다면 스페이스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세요.
• 영동가구 본점 02) 547-7850 평일·토요일 영업시간 9:30~19:30, 일요일 영업시간 10:30~18:30
• 신세계백화점 본점 9층 02) 310-1859 www.youngdonggagu.com

himolla
100% Germany
독일이 창조한 완벽한 쉼

ESSAY

봄꽃만큼 가을 단풍

일요일 늦은 밤. '콘서트 7080'의 주제는 가을 낭만이었다. 출연 한 어느 가수가 이런 말을 했다. 50대 가자는 몰랐는데 60이 넘고 보니 깨닫는 바가 있다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게 그냥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젠 나이가 재산 같다는 말도 했다.

가을에 드는 단풍이 봄에 피는 꽃에

전혀 꽃칠 것 없는 법이라고 지간방가가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을 듣자니 마음에 호응되는 바가 있었다. 나도 낭만에 대

하여 그냥 덤덤히 지나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한 모양이었다.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삶이의 가을 낭만에 마음이 그만 흥건해

졌다. 나의 사무실은 인왕산 근처라서 산의 기운을 흡연히 감

지할 수 있다. 내일 인왕산의 단풍이나마 뒤늦게 제대로 봐야겠

다고 마음먹었다.

간밤의 사소한 결심을 죄아 이런저런 심사를 가지고 월요일 인

왕산의 옆구리를 걸었다. 가볍게 산책할 요량으로 오후 4시경

출발했다. 너무 가까운 곳이라 시쁘게 보기도 하겠지만 이곳도

엄연히 산중이다. 벌써 해는 연세대학 뒤편의 안산으로 기울었

다. 햇살이 줄어들고 으슬으슬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유통

불통 바위와 굽이굽이 산길. 그 사이로 나무들이 늠름히 자라

고 있다. 나무는 최선을 다해 맛은 열매를 올해의 재산으로 알

고 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

팔배나무는 아직도 열매가 빨갛다. 봄나무의 소금기 가득한 열

매는 흔적도 없어졌다. 텔레나무의 가지 끝에는 빨간 열매가 두

둑하다. 작살나무의 보라색 열매가 싱그럽다. 때죽나무의 열매

는 공중에 총총하다. 젤레나무의 빨간 열매가 텃새를 유혹한다.

산초나무의 깬 열매는 떨어질락말락. 쥐똥나무는 쥐똥 같은

까만 열매가 겨우 하나 대롱대롱. 금슬 좋은 부부처럼 포개지고

있는 자귀나무의 잎들. 소나무는 여전히 여전했다. 모두들 각자

의 재산을 약작같이 불들고 있지만 때가 오면 하나의 밀알로 떨

어져 썩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약수터 지나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운동기구가 구비된 곳을 지

났다. 금강산의 한 절경을 빌려온 듯 만물상바위를 지나자마자

눈에 척 걸리드는 것은 이 산책로에서 가장 근사한 풍경! 나뭇

잎 사이로 붉은 출렁다리가 나타났다. 까마득하지는 않더

라도 제법 아찔한 다리다. 함께 간 친구가 이야기 하

길. 바로 이곳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주위

에 보여주면 모두들 설악산이나고 문

는다고 했다.

서울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풍경이지만 멀리 큰 산에 가서 웬만큼 땀을 흘리고 난 뒤에라야 맞이할 수 있는 경치와 맞먹는 샘이다. 이번 잡한 서울에서 단 몇 분만에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니 알싸한 기운에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출렁다리를 건넜다. 인왕산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눈길을 붙드는 것은 꽃향유였다. 꽃향유는 스러져가는 가을빛을 쓸어 닦으며 그 허다 향유였다. 꽃향유는 스러져가는 가을빛을 쓸어 닦으며 그 허다 한 아생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 피어 있다. 이렇게 가장 늦은 시간 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꽃향유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작은 실마리라도 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꽃이 한 번으로만 달려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이목구비가 얼굴 한쪽에 몰려 있고 뒤통수는 멋진 것과 유사한 구조다.

꽃향유는 얼굴에 허망하는 부위에만 자잘한 꽃이 짜증되고 뒷면은 그냥 시무룩한 표정처럼 우쭐드를한 들판이 있다.

혹 사방 전부를 보거나 육심부리지 않고 절반만 꽃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짧은 산책, 아니 근사한 산행이 끝났다. 드디어 대궐 같은 집들이

있고 문과 없는 대문이 보이고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청운초등학교 담벼락을 따라 난 길이다. 그 길은 왕복 4차선 대로와 연결된다. 그 길 끝에 작은 중국집이 있다. 길 모퉁이 중국식당. 이 근방에서는 맛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하루치 식재료를 장만해놓고 다 팔리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 겨우 자리를 잡으면 주문과 동시에 돈을 먼저 내야 한다. 나에겐 짜장의 면발보다 짭뽕의 국물로 더 감겨드는 집. 산에 갔다 가느라 늘 늦는 텐에 이마가 썰렁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오늘 지나치며 흘끗 보니 주방장은 손님 떠난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분주하게 점심때를 보냈으니 이제 여유 있게 저녁을 기다리는 중인 모양이었다.

찌장면 냄새를 찾아서 온 것일까. 중국집 정문 둘레단 앞에 꼬마 가 앉아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학생으로 짐작되는 아이는 노란 은행잎을 들고 장난치고 있었다. 옆구리에 가방을 들리며 품새가 학원 기다 말고 중국집 주방장처럼 잠깐의 여유를 만끽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노란 은행나무 아래 자하문 쪽을 배경으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허얗게 서리 내린 머리와 단풍잎 같은 얼굴. 중국식당 앞에서 꼬마와 노인이 엇갈리는 모양새가 어쩐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촉발되어 몇몇 시 구절이 떠올랐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라는 말이 있었지. 소년이로학난성 일촌 광음불가경(少年易老學難成一寸光陰不可輕)이라는 말도 있었지. 궁동이를 들썩거리며 혼자서도 잘 노는 꼬마 걸을 스치며 꽃하게 걸어가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덧붙이기로 했다. 아이가 봄에 피는 꽃이라면 노인은 이 가을에 물든

단풍이겠다.

글쓴이 이갑수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했다. 여러 우회로를 거쳐 서른 즈음에 출판계에 입문하여 민음사와 사이언스북스에서 일했다. 1990년 〈세계의 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 15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1999년 궁리출판을 세웠고 지금까지 대표로 일하고 있다. 저은 책으로 〈신인왕제색도〉, 〈인왕산일기〉, 〈오십의 발간〉이 있다.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1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www.clubmed.co.kr 02-3452-0123

산수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클럽메드 중국 계림
성인 129만원 부터

에어파키지(공항세, 유류 할증료 포함 가격)

* 모든 상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흘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THIS MAN

야구의 묘미는 의외성에 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

서울대 총장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력이나 행적 등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례 기사화되었기에 새로울 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를 만나고 싶었다.

야구는 곧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야구광 정운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 정운찬'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운이 꽉 찬' 사주를 타고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운찬. 집안 내 돌림자인 '구름 운'에 '빛날 찬'을 써서 구름 위에서 찬란히 빛나라는 뜻을 지녔는데…, 1970년대 미국에서 유학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조교수까지 지낸 그는 능력 못지 않게 운도 따랐던 것 같다. 컬럼비아대학 임용을 위한 이틀간의 심층 면접에서 그에게 물은 것이 야구 좀 아세요? 였다니. 면접관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이가 미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어 대표적인 스포츠인 야구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소설가를 꿈꾸며 습



작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글 좀 쓰세요?"라고 묻는 격이었던 것. 초등학교 때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간판 타자인 스텠 뮤지얼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야구 경기를 벌인다는 포스터를 보고 동대문운동장에 가서 관람했을 만큼 그는 어려서부터 야구광이었다.

"야구는 우리 삶과 무척 닮았다. 시즌 중 100경기 넘게 치르는 프로야구는 시즌 내내 승리와 패배를 오간다. 선수들 역시 추락과 반등을 거듭하며 시즌을 겪어낸다. 오늘 이겼지만 내일 패할 수 있고 오늘 추락했어도 내일 솟아오를 수 있다. 수많은 기쁨과 좌절, 행복과 고통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며 묵묵히 결승전을 향해가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다. 이 오르내림 속에서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오늘 이기든 지든 시즌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처럼 말이다."

9회말 2010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지나가던 그를 본 동네 형들이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야구하자'고 불러들인 것이 야구 입문의 계기였다. 처음 해본 경기에서 그는 플레이 볼을 두 개나 잡아내며 뜻밖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야구는 외로움과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남루한 일상에서 탈출 하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그의 고백에서 어린 시절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광산 채굴에 가산을 텅진 하다시피해서 그가 태어날 당시 집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다. 그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부모님은 5남매를 데리고 상경해 동승동 낙산 자리의 단간 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이는 마치 '9회말 2010'의 상

황과 흡사하다. 메이저리그 경기 중 9회말 2010에 1대8로 지고 있던 팀이 9점을 내며 역전승을 거둔 경기와 있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가친척 하나 없는 서울행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지니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까지 9회말 경기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어머니가 삶바느질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5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별

이도 시원치 않았다.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더싼 집을 찾고, 그러나 보니 자꾸만 달동네 괴짜기를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싸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하나님에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서는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걸 피해보려고 6시에 일어나던 것이 이사를 한 번 할 때마다 30

분 또는 한 시간씩 앞당겨졌다.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으니, 어쩌면 가난이 가져다준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상급학교 진학조차 막았던 소년, 야구로 어두운 현실을 감내했던 소년은 결국 인생에서 만루 홈런을 터뜨린다. 그의 부모님이 동승동에 둉지를 틀진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교정을 오가며 창문 너머로 흰색 셔츠를 입고 강의하던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영소 박사를 통해 장학금 후원자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인연들은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그의 인생을 짜내려갔다.

정운찬(66) 이사장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프리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컬럼비아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다 1978년 말 귀국해 모교 강단에 섰다. 2002년 서울대학교 총장에 선출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야구예찬) 휴먼큐브*를 발간해 야구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TV조선의 대국민 프로젝트

찾아가는 닥터 콘서트



보고듣기만 했던 방송프로그램 그 이상의 생생한 닥터콘서트가 열린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TV조선의 대국민 프로젝트!

깊이 있는 의학정보를 직접 보고, 듣고, 질문하며

홍혜걸 박사와 최고의 닥터들이 직접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제3회 찾아가는 닥터콘서트'

2013년 12월 13일,
"제 3회 찾아가는 닥터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 행 홍혜걸 (국내 최초 의학 전문기자 겸 MC, 현 TV조선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진행)

보조MC 개그맨 김한석

[제3회 찾아가는 닥터콘서트]

일 시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장 소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서울 광화문 소재)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5호선 광화문역 3,4번 출구

강연자 정진상 교수

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서울대학교 신경과학 박사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

강연주제 [중풍] 소리 없는 암살자, 뇌졸증

1. 뇌졸중이란? (뇌경색, 뇌출혈의 유형)
2. 뇌졸중의 진짜 가짜 구별법
3. 뇌졸중의 증상 | 4. 응급 대처법 및 예방 생활 습관

참가방법 TV조선 홈페이지(www.tvchosun.com)에서 응모 후 추첨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책 전격 출간!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MEMORIES

응답하라 1980

다시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가장 반색하며 맞을 이들은 5060 세대가 아닐까.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1980년대,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보낸 주인공. 돌아보면 당시는 어두웠고 힘들었으며 아팠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즐겁고 값진 추억은 커커이 쌓여 한 권의 두꺼운 앨범으로 가슴 한켠에

꽂혀 있다.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난다.

마치 아직 그 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옛 사진이나 물건을 만나면 더없이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키워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보자.



↑ 카세트



↑ 영화 '라봄'과

소피 마르소

1980년 개봉한 영화 '라봄'의 소피 마르소는 겨우 열다섯 살 소녀. 그러나 전 세계 남성들은 모두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남자 주인공이 소피 마르소의 귀에 헤드폰을 씌워주는 장면과 '라봄'의 주제곡인 리처드 선더슨의 'Reality'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고전이다.

포니 자동차 →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자동차 모델 '포니'는 1980년대 초 거리를 활활었다. 한국에의 체계화과 도로 사정에 맞는 소형차인 데다 내구성이 뛰어나 단숨에 국민자동차 자리에 올랐다. 1976년 현대자동차 차량 포니를 선보일 당시 가격은 220만 원(국수 한 그릇 값이 200원 정도였다). 첫해 벌써 45%에 육박한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1982년 포니2, 1985년 포니 액셀 등이 이어 출시됐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87년 포니 승용차의 생산은 완전히 중단됐다.



← 비엔나커피

‘다방커피’가 점령한 시절(시골에선 생화차처럼 커피에 달걀을 띄워주기도 하던 시절), 명동 등 시내 일부 격조 있는(I) 커피숍에선 비엔나커피를 선보였다.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휴핑크림을 얹은 비엔나커피는 1980년 당시만 해도 신문물이었다. 미팅에 나선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면 어렵사리 주문하곤 했던 것.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입맛을 길들이고 있는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동서식품이다. 1976년의 일. 그 덕분에 1980년대부터 인스턴트 커피믹스는 빠르게 대중화됐다.



↑ 존 레논

세계적인 록 밴드 '비틀스'의 존 레논이 1980년 12월 광팬의 충격으로 숨을 거뒀다. 전 세계 팬들은 그동안 평소 상상 바로 3주 전 발매한 앨범 '더블 판타지(Double Fantasy)'가 그의 유작으로 남았다. 전위 예술가인 부인 윤스 요코와 함께한 이 앨범은 당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 교련복과 조다쉬 청바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대학생 패션 역시 청바지와 티셔츠로 대변된다. 패션에 민감한 이라면 조다쉬 청바지나 나(기) 운동화를 하나쯤 소지했을 법하다. 반도파선(HG파선)이 미국 브랜드 조다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은 1982년. 이후 조다쉬 청바지는 젊은 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유의 말 머리가 그려진 로고를 비슷하게 만들어 붙인 짹퉁도 여럿 등장했을 정도. 반대로 멋에 국도로 무심한 학생들의 코드는 교련복에 기까웠다. 1980년대 초만 해도 교련은 대학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었고, 문무대는 남자 대학생의 필수 코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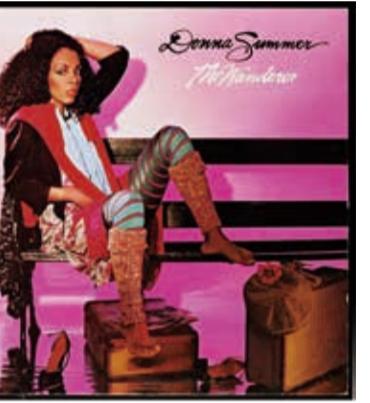


↑ 컬러 텔레비전

1980년 12월 일어난 문화혁명. 바로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열렸다.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송두리째 변화하기 시작한다. 회장품이나 옷, 허니문해 본연의 피부 톤까지 모든 것은 ‘색깔의 차이’를 받게 된다. 여성들이 기존에 모던한 다양한 색깔의 립스틱이나 스티커에 눈길을 준 것도 이때부터라고. 라디오 드라마는 점차 쇠퇴한 반면 텔레비전 드라마는 보다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당시 대표적인 드라마는 ‘전원일기’. 1980년 10월 방송을 시작해 2002년 12월 막을 내렸다. 1980년 시판을 시작한 금성사(현 LG전자)의 컬러 텔레비전은 그해 채 끌고나온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 도나 서머

1970~80년대를 흥행한 디스코의 여왕 도나 서머. 1974년 데뷔해 198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우리에게 ‘Hot Stuff’나 ‘Last Dance’ 같은 곡들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80년 발매한 앨범 ‘더 원더러(The Wonderer)’ 역시 그녀의 여성 힙합 춤 하나. 2008년 차마 힙합을 벌떡했으며, 지난해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 도나 서머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나미가 있었다. ‘빙글빙글’의 그녀는 56세의 나이로 지난달 새 앨범을 내놨다. 여전히 건재한 디스코 여전사의 위엄.



← 솔 담배

5060 세대인들의 영원한 첫사랑. 1980년 처음 등장한 솔 담배는 출시 당시 450원의 고급 담배였다. 맛과 맛을 아는 젊은 담배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1982~1986년까지 시장점유율은 차고지 60%, 판매량은 연 20억갑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로 콘셉트를 수정, 200원으로 가격을 대폭 내렸다. 결국 재산성 악화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됐고, 2005년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 타자기

사무혁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던 타자기. 한글 타자기 가출시된 것은 1950년의 일이다. ‘공방우 타자기’가 그 시초. 이후 경방공업주식회사가 ‘클로버 타자기’, 동아정공이 ‘마리온 타자기’를 각각 선보였다. 1980년대 대학생에게 타자기는 지금의 컴퓨터만큼이나 친한 친구. 리포트를 비롯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늘 타자기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타자기도 이제 멀증 위기애에 처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자기를 생산하던 인도 뮤비아의 ‘고드레지 앤드 보이스’ 회사마저 2011년 문을 닫았다.



← 신촌

1980년 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는 바로 신촌. 휴대폰은 커녕 빼빼도 없던 시절, 신촌은 요긴한 연락 창구가 돼주었다. 신촌 독수리다방 등지의 구석 기사판에는 ‘나’ 기다리다 간다. 내일 다시 보자’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연을 함께 신청한 음악들을 듣는 것은 신촌에서 누릴 수 있었던 호사 중 하나. 1970년대를 대표하는 세사봉이나 양희은이 1980년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렸고, 대만 가수 진주하의 ‘One Summer Night’ 같은 곡이 한동안 귀를 사로잡았다. 대학가 술집에서는 술값 대신 학생증이나 시계, 전자계산기 등을 맡아주는 따뜻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고, 300~400원에 칼국수나 수제비를 그득 채워주는 밥집이 많았다.



← 인문서적

대학 내에는 쿠사라(KUSA), 막스클럽연구회 등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유서 깊은 서클들이 즐비했다. 학생들은 강당과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1978) 같은 역사서나 인문서를 열구리에 끼고 다녔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울린 작곡’(1976), 김성동의 ‘만디라’(1978), 활석영의 ‘어둠의 자식들’(1980), 김종신의 ‘인간사장’(1981) 등이 널리 읽혔다. 사회 내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면서 많은 독자를 거느린 계간지 《창작과비평》은 1980년 별 15호를 발간했는데 이번 겨울에 어느덧 162호를 낸다.

김강현(53) 상무의 1980년은 ‘시위’와 ‘휴교령’, ‘학보사’ 등의 키워드로 각인돼 있다.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와 그 속에서 피워낸 새내기 대학생의 순수, 열정이 공존했다. 10·26사태와 12·12 군사변동을 겪은 이듬해인 1980년, 스무 살의 시작은 여지없이 어두웠다. 대학에 입학한 지 불과 한 달여 후 계엄령과 휴교령이 잇따라 내려졌다. “한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그때는 주로 과제를 평가로 친구들과 만나 종로 술집이나 첫장을 어슬렁거렸다.” 그의 단골집은 YMCA 맞은 뒷골목에 있던 OB 작곡가 주진. 물론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

이 시기 성행한 괴와 아르바이트도 그의 일과 중 하나였다(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몇 달 후인 1980년 7월의 일이다).

3~4개의 괴와 제법 응돈을 벌었던 기억이 그에겐 있다. 학교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한번은 재학증명서를 떼어 학교에 간 적이 있다. 끼다운 신분 확인을 거쳐 겨우 들어간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적이 한 교정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다.”

학보사 생활에 ‘올인’ 9월이 되어서야 휴교령이 해제됐다. 그때 김 상무의 발길은 교내 학보사 ‘연세춘추’로 향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활도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친형이 당시 학보사 일을 워낙 열심히 했던 터라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1980년대만 해도 대학신문은 하나의 ‘매신자’로 기능했다. 타 대학 친구끼리 학보를 매개로 소식을 주고받는 학보 사이에 편지나 쪽지가 끼워 보내는 것이다. 긴축 예산인 주제가 불명확해 누군가 보낸 학보가 학보사 사무실로 반송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속에는 물론 미처 전해지지 못한 인터национальн 사연의 편지가 접혀 있기도 했다.”

‘친리가 내려를 자유게 하라’ 김 상무는 3학년 때까지 학보사 활동에 매진한다(그는 결국 편집국장까지 해냈다). “당시 대학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자기 공부에 열중하거나 시위 같은 사회활동에 나서거나… 나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웠던 셈이다.”

자연히 학과 공부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 상무는 당시를 ‘내

INTERVIEW

“그 시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김강현 LG손해보험 상무(강북본부장·연세대 생화학과 80학번)

학보사 생활은 결코 흥미로워하지 않았다. 날마다 출근도장을 찍어야 했을뿐더러 기사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

“대학 시절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문구는 ‘친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校訓)이다. 당시 우리는 시대의 진리란 곤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의기도 많이 나눴다. 진실, 진리만이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변함없는 듯하다.”

재미있는 것은 학과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그가 학보사 활동을 경력 삼아 출사장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 1985년 LG손해보험의 총보 업무로 사회 첫발을 내딛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6개월 후 곧장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지만, “다시 대학 시절에 돌아간다면 학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당시 유전공학 분야의 전망이 밝다는 말에 선택한 학과였는데, 조금은 아쉽다.

물론 그대로 학보사 생활은 병행할 것이다. 내 대학 생활, 내가 보낸 1980년의 나날에 대해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PEOPLE

2013년을 보내며

바쁘고 힘든 한 해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올 한 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당신의 2013년을 설명할 한 가지 키워드를 끊는다면?

이재훈
릴리릴라 대표

信賴

2011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기능성 컴포트 슈즈 릴리릴라(Rila Rila)의 이재훈(40) 대표는 자신의 2013년을 '신뢰의 원년'으로 정리한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안착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얻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사업을
안착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해였다

하였다. 기존 6개 브랜드에서 미국, 이탈리아 브랜드 2개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고 매장도 8개나 늘었다. 업계 바이어들의 입점 문의나 여러 파트너사의 러브콜도 이따금 왔다. 젊은 시간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처음 사업을 준비하던 무렵 이 대표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패션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다. 뉴욕 FIT에서 패션 신입을 공부한 것도 그 때문.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다.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미 표방한 일반 슈즈 시장이 아닌 기능성 슈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여겼다.

“어디까지나 '경영자적 마인드'로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 분야는 나와 무척 잘 맞다. 운동을 하다 차운 운동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기능성 슈즈가 참 편하고 좋다.” 정장을 입은 그의 두 발에는 릴리릴라에서 선보이는 일본 브랜드 덴롭의 갈색 컴포트화가 신겨져 있다.

병원의 힘을 빌리기보다 삶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혼자만의 노력을 거듭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운동과 명상을 했다. 가능한 한 퇴근도 일당기려고 노력했다. “과거에는 매일 업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주말에도 일 생각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그런데 요즘은 4시까지만 일하고 이후엔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년여간 노력을 거듭했고 올 상반기부터 상태가 좀 호전됐다는 이 대표. 그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한다. “난 관 속에서도 일을 놓지 않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것. 이ul러 그는 “요즘 들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사업이 안정될수록 즐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전한다. 릴리릴라는 현재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유통 매장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표. 그러기 위해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다스리는 데 많은 품을 들이겠다고 그는 다짐한다.



이규현
갤러리 메타포 대표

召命意識

디자인에 입문해 주 전공인 건축은 물론, 다양한 생활 소품을 디자인해왔다. 우리에겐 여인이 팔을 치켜드는 모양의 외인따개 '안나 G' 디자인으로 특히 친숙하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멘디니만큼 단단하고 밀도 있는 가장 적기가 없는 것 같다. 국내 미술 환경이 그만큼 부족한 편이다. 이제는 기성 세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몫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화상(畫商)'으로 칭하는 이 대표가 업계에 뛰어든 건 약 15년 전. 미술품

딜러 생활을 거쳐 5년 전 갤러리 메타포의 수장이 된 후 그는 스스로 젊은 작가들의 버팀목이 되는 것을 주제하지 않았다.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와 관객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새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이 내게 생겨버린 것 같다.”

전시를 넘어 미술, 건축, 음악 등이 만나는 복합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그는 “내가 예신자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여태껏 경험한 것을 활용해 작가와 관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몇 달 전 복백수술 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며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생각 때문이다.

인생을 애써 계획하며 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이 대표는 재자 멘디니를 언급한다. “너의 삶을 증언하라”는 멘디니의 말이 자신에게 해주고픈 한마디라고. “멘디니의 말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것을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다.”

내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여태껏 경험한 것을 활용해 작가와 관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變革·探究

2010년부터 파나소닉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노운하(53) 대표. 스스로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노 대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인처럼 나름의 원리·원칙을 고집스레 고수해온 것”을 성공 비결로 꼽는다. 그런 그의 2013년 키워드는 ‘변혁과 팀구’다. 한 해 동안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부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디지털기메리나 캠코더 시장이 급변했고, 디스플레이 및 영상 관련 상품도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내 나름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다.” 한 해 동안 그가 조찬 세미나나 CEO 교육 프로그램 등에 부쩍 활발히 참여한 이유다.

2013년의 ‘업무 성적’에 대해 “당초 계획을 달성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평하는 노 대표. 그는 가장 민족스런 일로 파나소닉코리아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언급한다.

파나소닉코리아는 2007년부터 매년 2회

파나소닉 제품과 도서 및 생필품을 후원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힐링이 된다. 매번 시설을 방문해 원장님과 원생들을 만나는데, 우리의 작은 정성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새 반갑게 맞이주는 이웃의 따뜻함에 매료되어 민남을 손꼽아 기다를 정도라고. 총 13회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경기·인천의 200~300곳 시설을 거의 다 방문해다시피 한 파나소닉코리아는 을 연말 서울아동복지협회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청 표창까지 받게 됐다.

“기부 자체가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카메라 한 대를 건넨다는 것은 그만의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것에 보람을 느낀다. 꿈을 꾸며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헌원이 아닐까.” 올해 파나소닉코리아는 대학생 홍보대사에 정학금 전달을 비롯해 청소년환경사진공모전 후원, 자선음악회 지원 등 활동의 비중을 더욱 확대했다.

“우리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철학이지만 동시에 나의 철학이기도 하다. 혼자 잘사는 건 의미가 없다. 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노 대표의 철학은 ‘변혁과 팀구’라는 한 해 동안의 과제 속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기업의 기초를 높이고 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내 학우다”는 노 대표는 CSR(사회적 책임)에서 CSV(공유기지) 창출로 전환하기 위한 팀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2013년이 팀구의 해였다면 다가올 2014년은 빌로 뛰는 실천의 해이야 한다. 중지 모은 경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를 선도해가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그는 ‘기족친화경영’의 대표주자답게 직원들과의 유대감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직원을 육성하는 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의 업무다’는 취임 초 마음가짐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연말에 회포를 푸는 자리 마련해 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2013년이 ‘팀구’의 해였다면 2014년은 빌로 뛰는 ‘실천’의 해여야 한다. 변화를 선도해가는 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권경이

LOOK

클래식 체크의 향연

유행을 타지 않는 고전적인 체크무늬는 수수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겨울에 더 매력적인 남자를 위한 필수 체크 아이템.

몇 년 전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남자들이 유독 체크무늬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일까? 그렇다면 한국 남자는 이번 시즌을 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체크가 다시 유행을 이끌고 있기 때문. 세상에는 다양한 체크무늬가 존재하지만, 중장년층 남성이라면 짙은 두 가지 색상이 번갈아 놓인 블록 체크나 동일한 간격으로 가로줄과 세로줄을 교차시킨 강업 체크 같은 수수한 것을 선호하게 마련. 조금 평범하고 고전적이긴 해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멋을 내기기에 제격이다. 별도의 장신구 없이도 세련미를 자아내는 것은 체크만의 장점. 단순한 복장이라도 체크무늬 서츠나 마플러 같은 아이템 하나만 매치한다면 한결 패셔너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갈색이나 회색, 남색처럼 남성들이 선호하는 친분한 톤의 체크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이 계절 남성들이 눈여겨보면 좋은 아이템이다.

1 개주얼한 느낌의 남색 체크무늬 코트, 47만8000원. **번하트 디 일비어** 2 어두운 회색 실크 캐시미어 혼방 울 재킷, 620만 원. **브리오니** 3 회색 블록 체크 캐시미어 머플러, 가격미정. **실바스페리 폐가모** 4 푸른색 체크무늬 트루퍼 모자, 5만9000원. **질바이 질스튜어트 by 헛츠온** 5 깔끔하고 자작인 분위기의 갈색 체크무늬 서츠, 73만 원. **카론** 6 갈색과 남색이 교차하는 체크무늬 캐시미어 혼방 베스트, 55만 원. **링 재킷 by 랜스미어** 7 갈색 체크무늬가 그려진 회색 모직 팬츠, 49만 원. **피티제로우즈 by 랜스미어** 8 어두운 회색 체크무늬 올 베스트의 탈착이 가능한 패딩. 가격미정. **제이스포츠** 9 체크무늬가 은은하게 비치는 도트무늬 타이, 43만 원. **카론** 10 붉은색과 회색 체크에 퍼 인감으로 보온성을 더한 구미개, 4만 원. **에이글**



제작 문의: 퀸즈인피니(02-542-4177), 번하트 디 일비어(02-9274-6350)
제작 소포(02-8905-0260), 카론(02-511-0283), 키모(02-556-3787), 화이트(02-540-4723)
제작: 문의: 퀸즈인피니(02-542-4177), 번하트 디 일비어(02-9274-6350)
제작 소포(02-8905-0260), 카론(02-511-0283), 키모(02-556-3787), 화이트(02-540-4723)

ENTERPRISE

“좋은 침대? 내 인생 자체이자 도전” 바이스프링 오너 라파엘 곤잘레스 베테르

지난해 말 청담동 인피니(INFINI) 매장에 등장을 틴 영국산 프리미엄 침대 바이스프링 (VI-Spring). 최근 들어 국내 가구 팬들 사이에 부쩍 입소문을 타고 있는 바이스프링을 가리켜 한 전문가는 '침대 미학의 결정체'란 찬사를 주자하지 않았다. 때마침 11월 초 스페인에 거주하는 바이스프링 오너 라파엘 곤잘레스 베테르가 잠시 서울을 찾았다.



Q 영국 브랜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1901년 탄생한 바이스프링은 오랫동안 영국 내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해 우리가 바이스프링을 인수한 2005년부터 수출 시장을 급격히 확장시켰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30개국에 수출된다. 이를 위해 그간 회사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각국에서 개최되는 유명 박람회에 참가하며 브랜드 홍보와 파트너사 물색에 심혈을 기울였다.

Q 한국 고객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나? 바이스프링이 공식적으로 한국 고객을 만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우리는 한국 시장을 매우 특별한 곳, 중요한 시장으로 본다. 한국 고객은 세계 어느 곳의 고객보다 민감한 성향을 가졌다. '고급'에 대한 기대나 의지가 매우 높은 것 같다. 여기 인피니의 쇼룸만 봐도 실로 대단하다. 여러 럭셔리 브랜드가 하나의 매장 안에 밀집돼 있는 모습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바이스프링은 한국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Q 끝으로, 침대의 의미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한마디로 침대는 '마이 라이프' 그 자체다. 침대 사업은 우리 가문의 '페밀리 비즈니스'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침대를 접해왔다. 집 안에 쇼룸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침대는 나의 삶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한 요건으로 좋은 음식과 운동, 그리고 숙면을 꼽는다. 그런데 좋은 음식이나 운동과 달리 숙면은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다. 숙면은 뇌를 쉬게 만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뇌에 쌓인 피로물질을 잡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최상의 침대인 바이스프링은 잠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작업과도 같다. 이것은 내게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바이스프링 1901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래 주문수공 제작 방식을 고수해온 장인 기업이다. 스프링뿐만 아니라 내구재, 매트리스 커버, 스티칭 등 침대 일체를 생산한다. 여기에는 100% 천연 소재가 사용된다. 캐시미어, 모ه어, 대나무, 실크 그리고 오스트리아 무스버거 지역의 밀총 등 최고의 자연 소재만을 엄선한다.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 세틀랜드에서 생산되는 최상급 순양모는 바이스프링만의 특장점으로 꼽힌다. 바이스프링은 영국 여행과 왕실의 적개가족이 오랫동안 애용해온 브랜드로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영국 왕실이 품질을 인정한 기업에 수여하는 '퀸스 어워드(Queen's Award)'를 차지하기도 했다. 문의 인피니(02-3447-6000)

JOY OF LIFE

고대 무사들의 결투에서 기원한 펜싱. 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 이 스포츠는 칼싸움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종종 검도와 비견되곤하는데, 동양의 검도가 내적인 기(氣)를 중심으로 한다면 서양의 펜싱은 외적인 스피드를 중심으로 한다. 정돈된 자세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커 군살 제거는 물론 체력 향상에 탁월하다. 혹자는 펜싱을 가리켜 손에 칼을 쥐고 체스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매순간 집중해 상대의 마음을 읽고 판단해야 하므로 순발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전 국가대표 펜싱 감독인 윤남진 YFC펜싱클럽 대표는 “뭐니 뭐니 해도 남성미를 드러낼 수 있는 운동”이라고 펜싱의 매력을 강조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은 빠지고 탄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남성의 힘은 다리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근력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펜싱은 하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다. 허벅지 등 하체 근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 꾸준히 펜싱을 하다 보면 하체 근력이 강해진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펜싱 국가대표 신아람 선수의 주 종목으로 널리 알려진 예페의 경우 중장년층도 쉽게 공략할 수 있다. 윤남진 대표는 “무릎이나 발목이 좋지 않다면 펜싱 종목 중 예페를 권한다. 플뢰레나 사브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덜 요구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하더라도 문제없다.”

펜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턱이 낮은 운동이다. “규칙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레 겁을 먹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막상 몸으로 해보면 쉽다. 또 체력이 약한 ‘운동 초보’라 하더라도 기초 운동을 병행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펜싱이다”라고 윤 대표는 말한다.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 또한 펜싱에 대한 오해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펜싱용 장비는 턱없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선수용 장비는 200만 원을 호가하나 일반 경우 검을 비롯한 전체 장비가 보통 60~70만 원 선이다. 한번 마련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런던올림픽 이후 펜싱을 배우려는 이들이 부쩍 늘긴 했지만 아직 펜싱은 ‘회귀 종목’에 가깝다. 서울 시내만 해도 펜싱을 배울 만한 곳이 10곳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펜싱 같은,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스포츠를 하나쯤 갖는 것도 멋진 일아닐까.

TIPS
펜싱의 종류에는 플뢰레(fleuret)·예페(epée)·사브르(sabre)가 있다. 펜싱의 기초가 되는 플뢰레는 찌르기 경기다. 목 이하 다리 위가 표적이다. 예페는 몸 전체가 유효면이다. 플뢰레와 같이 찌르기만 가능하다. 찌르는 시간의 빠르고 느림에 따라 승점을 얻게 되므로 상대방보다 먼저 찌르는 게 관건이다. 사브르는 베기와 찌르기를 병용할 수 있다. 다리를 제외한 전신이 유효면이다.



INTERVIEW 펜싱에 빠진 남자

민병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 집회팀부장

“토·일요일에는 2시간씩 꼬박꼬박 펜싱을 한다. 주중에 쌓았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펜싱을 한 후부터는 업무 집중도도 훨씬 높아졌다.”

민병도(45) 부장이 펜싱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이다. 워낙 여러 운동을 즐기던 그의 주 특기는 검도. 4~5년간 검도로 심신을 다져온 그가 펜싱으로 눈길을 돌린 것은 발목과 무릎이 부쩍 약해지면서부터다. “무릎관절증이 심해지면서 검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 펜싱에 눈이 갔다. 예전부터 펜싱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집 근처 펜싱클럽을 찾아 행동에 옮기게 됐다.”

그런 민 부장의 모습을 지켜보던 초등생 둘째 딸도 덩달아 펜싱에 재미를 붙여 지금은 주말이면 부녀가 함께 펜싱클럽을 찾는다. 하루 2시간 정도 할애하는 것이니 부담이 크진 않다고. “재밌다. 숙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타 운동에 비해 펜싱은 기본 자세만 익히면 바로 시합이 가능해 재미를 느끼기 쉬운 것 같다. 상대와 겨루다 보면 기술 익히기도 훨씬 수월하다.” 민 부장은 ‘네는 운동인 검도와는 다른 ‘찌르는 운동’인 펜싱만의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내 생각에 검도가 선(線)으로 표현하는 운동이라면 펜싱은 점(點)으로 표현하는 운동이다. 그렇다 보니 펜싱이 좀 더 샤프한 느낌이 강하다.”

더워서 그가 택한 예페 종목은 약해진 발목과 무릎에 좋은 애이 되기도 했다. 물리치료와 펜싱 등의 운동을 겸하면서 무릎을 서서히 회복시킨 것. “여러 운동을 했지만 운동마다 쓰는 근육이 달라서인지 처음 시합 때는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만큼 하체 힘이 약했던 것이다. 하지만 2년간 꾸준히 펜싱을 하다 보니 어느새 허벅지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발목과 무릎도 많이 좋아졌다.”

‘서울특별시협회장배 동호인 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예페 단체전 우승, 개인전 3등 수상 경력도 갖고 있는 그는 펜싱에 특별한 목표는 없다고. 그냥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설이지 말고 경험해 보라.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 재미에 흠뻑 빠져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남성美의 극치

남자라면 한 번쯤 펜싱 검을 든
마에스트로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
적이 있을 것이다. 칼의 우아한
곡선과 그 곡선을 그리는 날렵한
몸짓…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
멋과 품위까지 갖춘 펜싱은 ‘신사의
스포츠’란 수식 그 자체다.



LIVING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

히몰라가 (주)영동가구를 통해 한국에 소개된 지도 벌써 15년. 그동안 히몰라는 한국의 대표 수입 소파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 비결은 바로 ‘독일산 품질’에 있다.



히몰라 4032

‘독일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정직함이나 정확성, 합리성 같은 것이다. 이 긍정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브랜드가 바로 히몰라다. 1948년 생겨난 이래 히몰라는 독일 내 최고의 품질을 지닌 제품에만 수여하는 ‘바바리안 품질상’을 세 번이나 받았다. 독일 소파 전문가들의 노하우, 현대적 제조 기술과 기계 설비, 최상의 재료, 엄격한 품질 관리 등이 이우 있는 깐깐함이 히몰라가 독일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다.

독일인은 어떤 물건을 마련할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장 품질 좋은 것을 선택,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을 고집한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명품은 최상의 품질과 유행을 타지 않는 절제된 디자인으로 유

명하다. 히몰라 역시 이 같은 독일산 명품의 성격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히몰라의 카를 좀머마이어 대표는 “독일산 품질(Quality made in Germany)”은 공허한 표어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철학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히몰라의 ‘독일산 품질’에 대한 자부심은 독점 개발한 슈퍼에스틱 몰드폼(Superastic mold foam)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좋은 품은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착석감을 제공하며, 소파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히몰라는 매일 매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신체 리듬에 따른 인체공학적인 편안함을 위해 슈퍼에스틱 소프트(Superastic soft), 메드(Med), 플러스(Plus)의 3가지 시팅 컴포트 레벨을 선보여 사용자의 체형에 맞춘 듯 편안한 착

석감을 제공한다. 이는 소파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요소가 됐음을 물론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히몰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란 명성과 함께 블루엔젤, M 마크 등 여섯 가지 퀄리티 라벨을 획득했다. 이 여섯 가지 인증마크는 유럽과 독일에서 인증하는 최고의 제품, 즉 환경적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독일의 엄격한 환경기준법을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공간과 취향에 따라 조합한다

자체 개발한 슈퍼에스틱 몰드폼의 차별적인 조합 방식과 기능을 가진 히몰라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베스트셀러 모델 4032는 기능성 리클라이너(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는) 소파로, 리모컨을

사용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운데 등받이 부분을 내려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의자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품의 단단한 정도도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히몰라에서 새롭게 론칭한 1301은 뛰어난 기능성과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조합된 모델이다. 장인정신이 담긴 소파 커버는 인라임을 선사하고, 몸을 기대면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는 리클라이너 시트로 만들어 편안하고, 테이블과 수납함이 통합돼 편의성이 높다. 또 모던한 디자인의 카우치(couch, 침대와 소파의 중간 구실을 하는 긴 의자)는 베른 하나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 인력한 잡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히몰라 소파에서 독일인의 꼼꼼함과 합리성은 각각의 모델이 보유한 ‘엘리먼트(elements)’의 차별적인 조합 방식과 기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소파는 다양한 사이즈와 기능을 지닌 수십 개의 엘리먼트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갖가지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문의영동가구(02-547-7850)



히몰라 1301 코너



Blue Angel
블루엔젤은 저공해 업홀스토리 기구를 의미한다. 제품의 생산에서 미지막 단계인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오직 저공해 제품만 시장에 공급하여, 인체에 무해함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다.



M 마크
독일품질기구협회에서 발행하는 미크, 엄격한 독일 환경기준법에 입각해 제품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부품이 법적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업체에만 부여하는 대표적 품질마크.



LGA Nürnberg / GS geprüfte Sicherheit
독일 뉴른베르크 주에서 발급하는 품질마크, 내구성·기능성·환경 적합성을 받은 제품에 LGA 마크를 부여하며, 이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허용 GS 마크를 부여한다.

TRAVEL

롯데제이비 추천 | 홍도·흑산도 1박 2일 |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그 섬으로 간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홍도와 흑산도를 일차로 다녀올 수 있는 일정이다. 오전 7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밤 11시 서울에 도착하는 고박 이틀간의 여정. 목포 도착 후 쾌속선으로 2시간 넘게 달려야 달는 홍도는 해가 질 무렵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 '홍도'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고, 시인과 규암으로 이뤄진 섬이 홍갈색을 띠어 붉은 섬이 되었다고 한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섬 홍도는 해마다 수십만의 관광객이 몰려들 정도로 이름다운 섬이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가 절묘해서 남해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물이 맑고 투명해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바닷속 10m가 넘게 물어다보인다고. 홍도 관광의 진수는 홍도33경으로, 주로 유람선을 이용한다. 남문바위, 실금리굴, 석화굴, 탑섬, 만물상, 슬픈여, 일금남매바위, 수중자연부부암 등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아름답다. 기암괴으로 이루어진 절경 뿐 아니라 이쁜 불붉게 섬을 뒤덮는 동백꽃 또한 홍도에서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유명한 풍란의 자생지인 홍도에는 아름드리 동백 숲과 후박나무, 식나무 등 희귀식물 540여 종과 231종의 동물과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 섬 전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미술 이외에 산은 들어갈 수 없으며, 놀맹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채취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홍도에서 배를 타고 30분만 가면 달는 흑산도는 해안을 따라 일주도로가 닦여 있어 섬 전역을 한 바퀴 돌면 흑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해상관광을 하려면 예리함을

TIPS
롯데제이비는 2007년 세계적 여행 기업 일본 JTB와 합작해 설립한 여행·관광 전문회사다. 여행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창조하는 롯데제이비는 롯데그룹의 관광 및 유통 인프라와 17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한 JTB 글로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을 둘러보는 홍도·흑산도 1박 2일 일정은 22만7000원부터.
문의 1577-6111, www.lottejtb.com

한국 여행의 묘미 부담없다 편안하다 즐겁다

코레일관광개발 추천 | 레일크루즈 해랑 '해오름' | 호텔식 관광열차를 타고 한반도를 누빈다



최근 기차여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열차 안에서 보고 즐기는 테마열차가 시장을 받고 있다. 2008년 11월 출범 이후 명품여행으로 명성을 쌓아온 해랑은 한국형 블루트레인(남아공에서 운행 중인 호화로운 숙식관광열차)을 표방한다. 외관은 코발트블루와 봉황 문양을 새겨 품격을 더하고, 내부는 호텔식 객실로 꾸민 침대와 사워 시설, 소파 등 각종 편의시설을 통유리를 통해 청밖의 멋진 풍광 감상은 물론 식당칸에서는 다양한 식음료와 와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받고, 경유지마다 지역의 최고 맛집에서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24시간 서비스하는 승무원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술쇼, 퀴즈, 공연 등을 선보인다.

해오름 코스의 첫 번째 여행자는 국내 고품격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청도 와인티벌', 벽돌 아치형의 아름다운 와인티널은 옛 경부선 기차터널이 감와인 향기로 기득한 관광지로 새롭게 변신한 곳이다. 청도 와인티널에서는 와인 시음뿐만 아니라 꿈을 적은 종이를 와인 병에 보관하거나 자신만의 와인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와인의 향기를 뒤로하고 중년 세대에게는 추억의 여행 장소인 경주로 향해 시티투어와 함께 천년 산과의 천만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미소' 공연을 관람한다. 경주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해랑 열차에서는 낭만적인 밤을 맞는다. 차창 밖 야경과 함께 열차 안에서 펴지는 통기타 공연은 낭만 그 자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와인과 맥주, 콘서트를 즐기며 함께 온 이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TIPS
숙박이 가능한 침대 객차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객차로 구성된 호텔식 관광 전용 열차 해랑은 고객의 만족도를 반영해 시즌별로 새로운 코스를 선보인다.
2014년 2월까지는 화요일에 출발하는 2박 3일 '아우라'와 토요일에 출발하는 1박 2일 '해오름', '씨밀레'를 격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격주 토요일 출발하는 1박 2일 해오름 코스는 128만 원(2인 1실)부터.
문의 080-850-7749, www.railcruise.co.kr

여행박사 추천 | 삼탄아트마인 | 예술을 입은 탄광으로 추억을 찾아 떠나다



최근 '꽃보다 할배'에서 대만의 폐광이 눈길을 끌었는데, 강원도 정선에는 그보다 더 근사한 폐광이 있다. 폐광의 원형을 유지한 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독일 애센의 줄페리언(Zollverein)을 모델로 삼아 완성한 삼탄아트마인이 바로 그것. 삼탄은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광 경암광업소의 출입말로, 삼탄(Samtan) · 예술(Art) · 광산(Mine)이 어우러진 삼탄아트마인은 국내 1호 문화예술 공간이다. 40여년 동안 기동되거나 10년간 방치되었던 폐탄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한편, 기존 사무실과 작업 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척탄광 시절 사무 공간과 함께 광원들이 사용하던 공동 사워실, 강화를 뒤던 세화장 등이 있던 종합사무동은 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 예술놀이터,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 삼탄아트센터로 탈바꿈했다. 탄광 시절 광원들이 출퇴근이나 일용 전후 옷을 갈아입던 강의실 겸 사물함이 있던 곳은 진귀한 세계 미술품이 모여 있는 수장고로 바뀌었다. 이곳의 아프리카 원시 미술품, 남미의 양의 문화 유물, 유럽,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소장품은 문화행사에 맞춰 테마별로 전시된다. 같은 건물 1층은 레이던시 작가들과 함께하는 예술 체험관으로 활용되는데,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 스튜디오와 연계해 예술 교육 프로그램, 작가 작업실 텁방 등을 진행한다.

TIPS
삼탄아트마인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여행박사는 매주 토·일 출발하는 당일 버스투어를 운영한다. 삼탄아트마인 관람을 비롯해 법흥사 방문과 영월 다하누촌 한우를 자유 선택식으로 맛볼 수 있다. 어른 4만5000원, 어린 4만1000원. 개별여행에도 입장료 30%, 숙박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70-7017-9735, www.tourbaks.com

우리나라 구석구석 매력적인 여행지는 상당히 많다.

더구나 최근 각 지자체가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여행지 여건이 더없이 좋아졌다.
마음이 동할 때면 망설임 없이 떠나보자. 마음 닿는 곳, 발길 닿는 곳으로.

모두투어 추천 | 한국이야기 한려수도 3일 | 멋과 풍류를 아는 선비처럼 떠나는 여정



어디를 여행하는지 놓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한국이야기는 여유롭고 뜻깊은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 한려수도 3일 일정은 서울에서 출발해 거제, 통영, 남해, 광양, 여수, 순천 전주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여행은 거제 신선대에서 시작된다. 신선대는 바닷가에 큰 바위가 지리를 잡고 있는 형상인데,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푸른 바다 등 주변 해안 경관의 경치가 뛰어난다. 유람선을 타고 소매물도를 둘러보는 재미도 쓸쓸하다. 통영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소매물도와 등대섬의 기암괴석과 총석단지가 특히 절경이며, 썰물일 때는 두 지점이 연결되어 건너다닐 수 있다. 등대섬에서 소매물도를 바라보면 기암괴석으로 이어진 바위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공룡이 앉아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둘째 날은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한려수도 풍광을 조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미륵산에 설치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1975m) 관광용 케이블카로 상부역사까지 소요 시간은 약 9분. 미륵산 정상에 오르면 한산대첩의 역사적인 현장과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300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본 대마도, 자리산 천왕봉, 여수 풀산도까지 바라보인다. 이후 경상남도와 전라도를 잇는 화개장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 삼림욕,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 등을 둘러보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남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산책하며 오전을 맞는다. 총 길이 8.5k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TIPS
모두투어의 한국이야기는 28인승 리무진버스, 특급호텔로 구성된 노립·노음선·노소평의 국내 고급 품격 여행. 한국 역사와 문화에 박식한 여행 가이드의 안내로 편안하고 여유롭게 우리나라 구석구석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한려수도 3일 총길은 45km 원부터. 이외에 한국일주, 서남부권, 동남부권, 호남권 등 다양한 일정의 상품이 있다.
문의 1544-5252, www.modetour.com

SENIOR CARE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서비스 체험기 “이제야 제 시간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불과 한 달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 오미연 씨.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균황을 설명하지만

얼굴에선 마음고생의 흔적이 물어난다. 얼마 전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그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탓이다.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잘 돌봐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오히려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던 것. 그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5월 오미연(48) 씨의 어머니 박봉순(84) 씨는 아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섰다. 5년 만에 뉴욕에 있는 아들 집에 간 어머니. 대학을 졸업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기 위한 길이었기에 더욱 설레었다. 하지만 자녀들을 만나 마음이 들떠서였을까. 어머니는 집 안에서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결국 가족의 걱정 속에 외국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얼마 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작집한 마음을 안고 서울 방배동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안정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이 헛인지 회복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도 많지 않아 가족의 걱정은 깊어만갔다. 아버지가 함께하긴 했지만 연로한 딸에 어머니를 돌보기는 어려웠고, 다른 자녀들 또한 해외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힘들긴 매한가지였다. 결국 같은 서울에 살고 있는 오씨가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그녀는 잠시 하던 일을 끝내고 자신의 집과 부모님 댁을 오가며 간호에 열중했다. 물론 그동안 어머니 하던 일은 모두 그녀의 몫으로 바뀌었다. 간호와 함께 부모님 두 분의 식사를 챙기고 집 안 청소와 빨래 등을

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자녀로서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달라진 환경은 심신의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결국 병이 난 오씨.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더 이상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항상 딸의 건강을 염려했던 어머니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미국에서 수술 후 한동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았는데,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길 생각을 하니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내밀었다. 세상에 흥흉한 일이 많은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적인 도움은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인 만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 관련 업체를 알아보고 요모조모 따져보길 몇 번. 그녀는 주변 사람의 추천을 받아 외국계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어요”

회사는 계약에 앞서 오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와 상담을 했다. 어머니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고 담당자는 설명했다. 회사는 이 자리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어머니에게 제공될 구체적인 케어 플랜을 작성했다. 또한 어머니의 취미와 종교, 문화적 취향 등을 감안해 가장 어울리는 인력을 선정했다고 알려왔다.

어머니 댁에 온 케어기버(CAREGiver™, 어르신 돌봄 전문가)는 10여년 동안 어르신을 돌본 경험 있는 베테랑. 하지만 적당히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며 오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준비를 하거나 집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회사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케어기버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어머니의 활짝 웃는 모습을 전보다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딸아이가 나를 돌봐주러 오면 고맙긴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어요. 자기 할 일도 많고 바쁜 아이인데 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정말 편해요. 이제는 케어기버 오는 날만 기다려져요.”

오씨 역시 자신과 어머니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어머니를 돌봐주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활을 찾을 수
있어 만족이에요.”**

제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니 제 표정도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어머니 역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하세요.”

오씨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결국 그것이 부모님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길이에요.”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

어떤 회사인가?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약 100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시니어 케어 전문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는 품격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민간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 프리미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부모님께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기버(CAREGiver™, 어르신 돌봄 전문가)는 전문 교육을 받고 어르신을 오랫동안 돌본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든 케어기버는 배상책임보험과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녀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는 부모님이 홀로 생활하는 대불편함이 있도록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한다. 세분화된 서비스 중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별 맞춤 케어 플랜을 설계하며, 서비스 기간 중 고객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과 부모님 관련 사항을 정리한 고객 일지를 작성해 자녀에게 전달한다.

1 부모님 건강 관리 협력 체크, 혈당 체크, 투약 관리, 병원 동행

2 위생 및 안전 관리 음식을 유통기한 확인, 칼·도마 소독, 쓰레기 버리기, 가스 누출 점검, 집 안 내 위험요소 관리

3 세부적 지원 대화, 게임·카드놀이, 산책, 레크리에이션, 책 읽어드리기, TV·영화 함께 보기

4 신체적 지원 대화, 게임·카드놀이, 산책,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입혀드리기

5 생활 지원 경보기, 식사 준비, 설거지, 거실·주방·욕실 등 집 안 청소, 침구 및 의복 세탁

6 퍼스널 컨시어지 우편물 관리, 일정·약속 관리, 전화·초인종 응대하기, 화분 관리, 외출 동행, 아외 활동 계획 세우기, 개인 심부름

7 치매 케어 인지력·지남력 지원을 위한 비의료 치매 케어 프로그램

오미연 씨 어머니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월·수·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장보기, 식사 준비, 설거지, 냉장고 정리, 음식물 유통기한 확인, 거실·주방 등 집 안 청소, 집 안 내 위험요소 관리, 쓰레기 버리기, 이동 도움, 산책, 대화, 게임·카드놀이 등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가?

1 부모님의 일상이 부쩍 줄었다
충분히 어르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다. 케어기버는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들은 정서적 지원은 물론 적절한 아외 활동을 유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돋는다.

2 초기 치매나 인지 장애가 의심된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대처는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속적인 병원 치료를 통해 증세를 늦추고 인지력과 지남력 자극을 위한 치매 케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3 사별 직후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강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신체적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 든든한 범침복이 될 수 있는 케어기버를 부모님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병원에서 큰 수술을 마치고 퇴원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악화된 상태라 친족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님 간호를 위해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한 채 살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집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5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다
무리해서 부모님을 돌보다가는 자칫 자녀의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에도 좋지 않다. 전문 교육을 받은 케어기버와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6 부모님께서 홀로 살 수 있다고 고집한다
부모님이 연동화질수록 홀로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케어기버를 부모님 곁에 두는 것이 좋다.



**Home Instead
시니어케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의 동반자

홈인스테드코리아는 세계 최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미국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의 한국 법인으로 2008년에 설립했다. 본사와 동일한 케어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청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출 동행, 투약 관리, 식사 준비, 안전한 집 안 환경 유지, 심부름, 치매환자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의 02-3218-6243, help@homeinstead.co.kr

INSIGHT

미래학자에게 듣는 2030년 시니어 라이프

미래 시니어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지금 당신이 50대 중반이라면 70대로 접어든 2030년으로 미리 가보자.
아시아미래연구소장이자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에게 듣는 2030년 시니어 라이프.

지금으로부터 17년 후, 사회 전반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최윤식 박사는 말한다. “앞으로 20년간 일어날 변화는 지난 100년간 인류 전체에 나타났던 변화보다 훨씬 급격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빠른 게 이치다. 다음은 최 박사가 그리는 2030년의 모습.

사람 2030년경 인구 구조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는다. 2028년이면 이미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된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10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55세 이상 연령층은 전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같은 상황은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꾼다. 시니어의 막강한 표심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노인 복지 제도는 더욱 강화된다. 시소하게는 건널 목 신호등의 녹색 불이 유지되는 시간마저 늘어날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로 내수 시장 경제는 심화된다. 1660만 명의 1차 베이비부머의 3분의 1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창업을 시작한다. 250만 개 이상의 신규 창업이 생겨남으로써 창업 시장은 심각한 레드오션 상황에 처한다.

산업 30대 그룹 절반 이상의 얼굴이 바뀐다. 부상하는 분야는 바이오, 나노전자, 로봇·사이버고, 무인 전기자동차. 특히 2020년 이후 바이오 산업과 의학, IT, 로봇과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하는 산업’은 크게 성장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G20 국가들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각국은 ‘바이오 생명 강국’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 많은 벤처들이 바이오 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이 분야에 ‘플러그인’하는 것이 관건). 지금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세컨드 잡을 준비하자. 건설이나 화학, 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부품, 소재 등의 산

업을 제외한, 보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장년 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에게 넘어간다(2015년부터는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독주는 2030년까지 이어진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3D 프린터 혁명을 꼽을 수 있다. 즉 ‘공장의 개인화’가 이뤄진다. 매우 정교해진 3D 프린터가 같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모두 생산해낼 것이다.

건강 2030년의 일흔은 아직 노인이 아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은 최소 80세 이상을 의미한다. 2030년의 70세는 지금의 50~60세 정도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신중년’으로 지칭될 수 있다. 신체능력이나 건강 상태도 50~60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70대는 한창 활동할 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짐에 따른 개인적 노력과 바이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의학적 보조가 비결이다.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높다.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이 지속되는 탓이다.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로 기인한 신종 질병이 등장하며 아열대성 전염병(말라리아, 맹기열 등)은 더욱 확산된다.

여가 일과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다. 더불어 여가의 구체적인 모습도 매우 획기적이다. ‘가상공간’이 등장한다. 프랑스 파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공간 내에서 베르사유궁전과 루브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타국이나 지방에 있는 손주들과 가상공간에서 만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즐기기도 한다. 민간 우주여행도 1억 원 미만으로 값이 떨어져 하나의 여행 패키지로 각광받게 된다.

일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최소 80~85세까지는 일을 하게 된다. 다만 ‘40~50대가 내 연봉 절정기였다’는 생각을 가질 따름이다. 연봉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50대까지는 자녀 양육비와 세금 비중이 높지만 그 이후부터는 경제적 책임이 가벼워질뿐더러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된다. 2030년 시니어의 최대 관심은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곧 시니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진다. 보안은 물론 바이탈시인 체크까지 가능하다. 경찰과 의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 살아 있는 애완견 대신 애완로봇이 외로운 시니어의 곁을 지킨다.



INSURANCE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CI보험은 해법이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질병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 상품이 CI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금융 상품이다. 가장의 유고후 남은 유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많은 사람이 나누어 서로 돋는 상부 상조 상품이다.

1990년대에는 암보험, 건강보험에 주목을 끌었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종신보험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종신보험의 특징은 평생토록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점. 언젠가는 사망하므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지급된다. 본인 유고 시 유가족의 생활보장 자산, 상속 자산 등을 마련하는 가족 애를 담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멸성이 아닌 생사보험은 성격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인출하거나 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중대 질병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은 국내에 2002년 처음 소개되었다. 종신보험의 장점에 더해 중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치료를 통한 생명 연장의 기회를 반영한 상품이다.

한 번 가입으로 중증 질환과 사망을 동시에 보장받고, 종신보험에 질병보험을 합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수술은 실제 치료비도 많이 들고 발생 시 징후를 끊어 생활비 고통을 동반하는 중증 질환이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을 비롯해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과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5대 장기 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등에 대해 보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망뿐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까지 보장하기에 기존의 종신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대 질병 보장하는 CI보험, 어떻게 선택할까

많은 장점을 지닌 만큼 CI보험은 매우 다양하게 소비자 기호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CI보험에 가입하기 전 올바른 선택 요령을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다. 우선 CI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하는 금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가장 경제적 고통이 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보험료 때문에 무조건 보장금액을 낮추는 것은 고려 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CI보험은 보험료 부

담 완화를 위해 자유입출금 기능을 적용한다. 보통 2년 정도의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음은 CI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선택이다. 그러나 전문용어로 중대 질병 및 수술에 대해 기술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CI보험은 대부분 질병 판정 기준이 유사해 회사별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보장이 제외되거나 소액으로 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회사별로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은 10~15개 내외다. 보장 범위는 단순히 보장 개수보다는 실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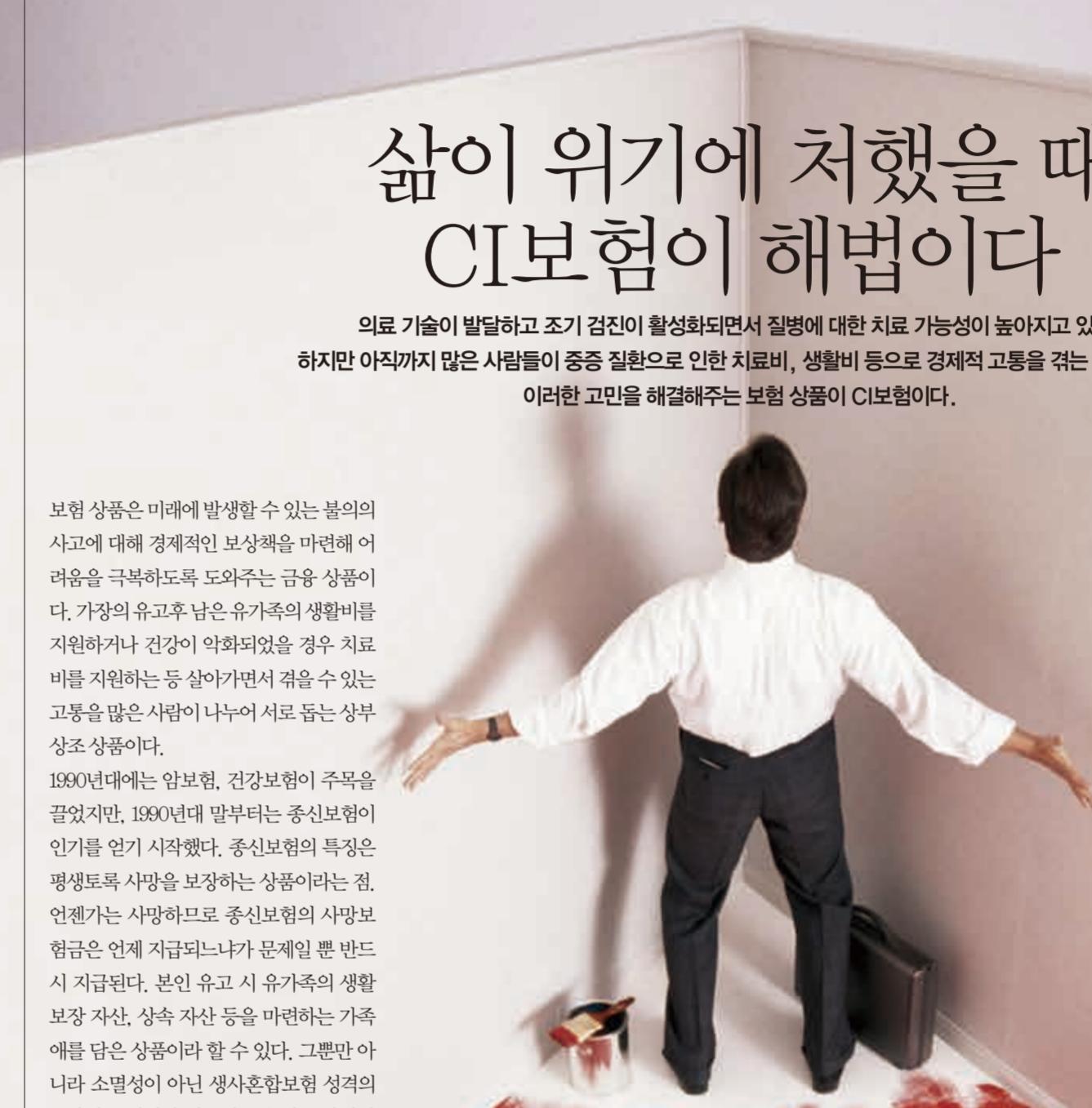
능성이 높은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질환 보장이 필요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발병이 급증하는 장기 간병 및 치매 보장이 포함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 번만 지급되는 CI보험금을 한번 더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었다. 암 질환의 경우 처음 생긴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 또는 2차 암이 발생하면 재차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암 발병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상품도 효용이 높다.

CI보험은 선지급되는 CI보험금 만큼 사망 보험금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 유가족에게 돌아갈 생활 자산이 줄어드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 사망보험금을 증액하는 옵션도 있다. CI보험의 경우 중대 질병 및 수술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한다. 선지급 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다소 올라가지만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선지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 까지 올려주는 상품도 출시되었다. 보험료 부담도 줄이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CI보험에 갖춘 다양한 기능, 서비스 혜택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CI보험은 한 건으로 가족 모두 보장받도록 설계된 상품이 많고, 다양한 부가특약,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별로 건강 관리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을 통한 역경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CI보험은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이 시대에 가장이 꼭 가입해야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CI보험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국내 최초로 통합보험을 소개했고 CI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 개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보험기획 산출 제도인 CFP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NFOPACK



STAGE 배우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국민배우 김혜자기 연극 'オスカ! 신에게 보내는 편지'로 관객을 만난다. 그냥 연극이 아닌 모노드라마다. 일흔셋의 '연기 거장'은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작품이 줄이어서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대본을 받아 들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고,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6년 만에 택한 연극 'オスカ!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프랑스 작가 에릭 엘마누엘 슈미트의 소설 <オス카와 장미 할머니>를 원작으로 한 작품. 백합병에 걸린 열 살 소년 'オス카'와 소이병동에서 가장 나이 많은 간호사 '장미 할머니'의 우정을 다룬 작품이다. 자신의 죽음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장미 할머니를 의지하게 된オス카와 장미 할머니의 우정은 날로 깊어지고, 그 초연한 일상 속에서 절망 대신 삶의 의미가 새롭게 피어난다. 모노드라마 형식으로는 처음 시도된 이번 공연에서 김혜자는 장미 할머니와 오스카, 그리고 각종 감초 역할까지 총 11명의 역할을 소화하며 내공을 드러낸다. 8월부터 연습에 매진한 김혜자는 '평소 TV에서 자주 보여주는 엄마 이미지보다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혼자 11역을 연기하는 것은 엄마 힘든 도전이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지만, 나는 이 공연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오스카의 마지막 12일간의 일상을 통해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번 작품을 지휘한 연출가 헌영준 씨는 "그 어떤 70대 여배우가 열 살 소녀부터

30~40대 부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천진함과 관록을 함께 갖춘 김혜자 씨는 '최고의 배우다'라며 친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혜자의 새로운 도전 'オス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12월 29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 신한카드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1588-0688



SPACE 평창동 마을공작소 '파미가'

종로구 평창동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문화놀이터 '파미가'가 바로 그것. 파미기는 2010년 화기자마자 조각가인 정혜진 작가의 작업실 일부를 어린이 놀이터로 확장한 '다누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다누리는 어린이 놀이터로 환우들의 사회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로, 어린이 놀이터 전문의 김홍동 연세대 의대 교수가 주축이 되고 있다. 정혜진 작가와 김홍동 교수는 부부, 놀이터 문제를 널리 일리고 환이들을 돋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 부부는 공간 정비를 거쳐 소통의 온기를 느껴보자.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45-1. 문의 02-395-0144

SPOT 찾아가는 닉터콘서트

TV조선 간판 프로그램 '홍혜걸의 닉터콘서트', 그 두 번째 오프라인 무대가 11월 3일 미포아트센터에서 펼쳐졌다. 200여 명의 객석을 메운 가운데, 이주대 정소나 홍정현 교수가 '치매에 대한 오해와 상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스치마의 원인 △간민증으로 알아보는 치매 단계 △치매 치료제의 효과 △'예쁜 치매'를 만드는 치매 관리 △실천하고 싶은 치매 예방법에 대해 두루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절만 치료하면 설령 치매에 걸린다 해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홍 교수는 또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지만 운동, 식단, 사회활동 등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대한치매학회가 제안한 '진인사 대천명'을 소개했다.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대뇌 활동에 힘쓰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삶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한편 찾아가는 닉터콘서트는 지난해 10월 첫 방송 이후 1주년을 맞은 '홍혜걸의 닉터콘서트'의 오프라인 버전으로, '국민주치의' 홍혜걸 박사와 닉터들을 필두로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유용한 의료 정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는 취지다. 세 번째 찾아가는 닉터콘서트는 12월 13일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정진상 교수가 '소리 없는 임상자, 뇌졸증'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TV조선 홈페이지(www.tvchosun.com)



홍선생미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림 그리며 행복을 찾으세요!



100세 시대, 나만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림 그리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평생 간직만 해오셨나요? 조선에듀케이션과 홍선생미술이 그림에 대한 열망을 자닌 시니어를 위해 미술 강좌를 개설합니다. 봇을 톡톡 찍으면 나무가 되고 꽃이 피어나는 쉽고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의 세계. 홍선생미술 교사가 갈망이 되어드립니다.

스기업체 내 동호회 △초중고 교사 △기업체 CEO 모임 △금융기관 고객 대상 문화 마케팅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싶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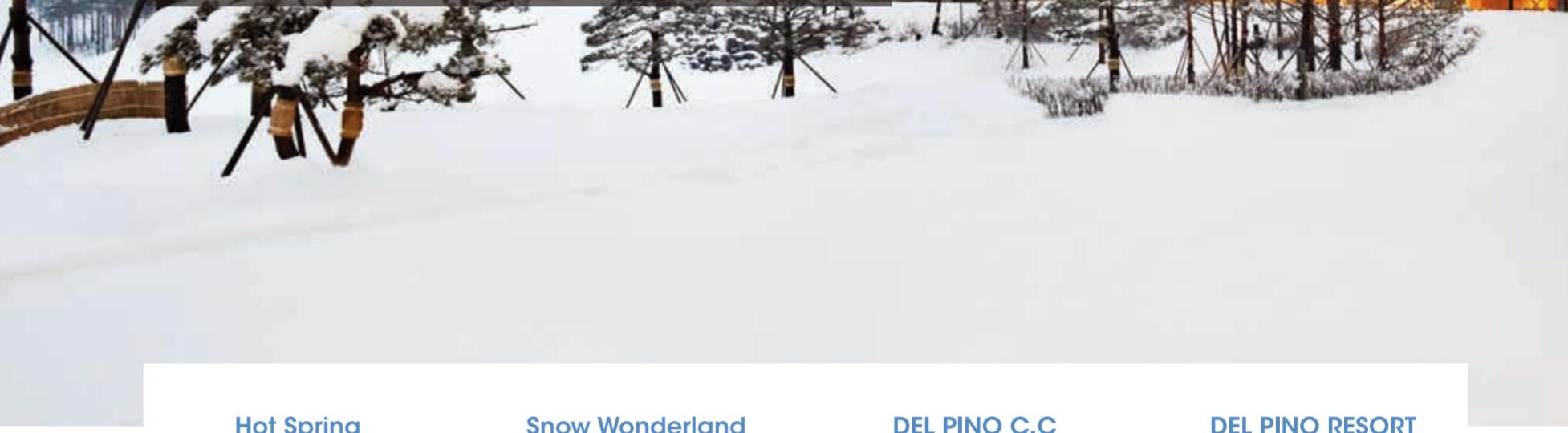
문의 1588-0088(misul.eduhong.com)

머리에 그리는 아트릴화 머리에 그리는 수채화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의 겨울을 만끽하는 네 가지 방법

4 in ONE, DEL PINO

눈을 테마로 한 스노우 원더랜드 페스티벌, 울산바위의 비경을 품은 컨트리클럽, 설원을 배경으로 야외 온천탕에서 즐기는 노천욕, 다양한 웰빙 다이닝까지! 엔터테인먼트, 레저와 힐링을 이루는 델피노의 짜릿한 겨울나기가 시작된다.



Hot Spring

눈 내리는
노천탕에서 즐기는 온천

온천에도 격이 있다!

델피노의 겨울축제를 막을 수 없다.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의 아쿠아월드는 실내존과 노천탕, 사우나로 구성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전천후 공간. 이곳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은 단연 노천탕이다. 고즈넉한 정자 형태로 지은 델피노의 노천탕은 설악의 장엄한 비경을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청정해역 동해의 지하 450m에서 분출되는 양반수를 사용해 스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온천수에 적합한 신도 8.3마이의 악일킬리성에 탄산나트륨, 각종 무기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다.

•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0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Snow Wonderland

여행이
축제가 되는 시간

델피노의 겨울축제를 막을 수 없다.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는 작년에 이어 2회째 키즈파크 <스노우 원더랜드>를 12월 20일부터~내년 2월 2일까지 약 45일간 개장을 한다. 스노우 원더랜드는 눈을 주제로 한 눈썰매, 스노우 카트, 스노우 래프팅, 이글루 등 놀이터미와 야외 조각전, 스톤헨지 조명 출입로 이루어진 관람 테마,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재미가 가미된 겨울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음식 테마, 황토난로 쉼터, 미니 암목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테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가족은 물론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 예약 및 문의 1644-0063,
www.dgolfclub.com

DEL PINO C.C.

울산바위의 설경을
품은에

델피노 리조트는 압도적인 규모와 혁신적인 시설,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리조트다. 델피노 곳곳에는 마치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진잔한 재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신비의 상징인 스톤헨지 조형물과 견우와 직녀가 만나 애틋한 사랑을 속삭인 오작교를 테마로 한 분수, 벌빛공원 등은 동심을 자극한다. 델피노 리조트는 콘도 923실, 호텔 84실, 빌리지 7개 동 58실, 총 1,065실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온천 수의 아쿠아월드와 테디베어 뮤지엄, 울산 바위의 절경을 미주한 마운틴코스(8홀)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고 있는 유끼바나에서 애프터 골프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델피노 리조트는 압도적인 규모와 혁신적인 시설,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리조트다. 델피노 곳곳에는 마치 한편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진잔한 재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신비의 상징인 스톤헨지 조형물과 견우와 직녀가 만나 애틋한 사랑을 속삭인 오작교를 테마로 한 분수, 벌빛공원 등은 동심을 자극한다. 델피노 리조트는 콘도 923실, 호텔 84실, 빌리지 7개 동 58실, 총 1,065실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온천 수의 아쿠아월드와 테디베어 뮤지엄, 울산 바위의 절경을 미주한 마운틴코스(8홀)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고 있는 유끼바나에서 애프터 골프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는 카페로카와 식객, 그리고 겨울의 미각을 살려주는 승원 등이 있다.

• 예약 및 문의 1588-4888,
www.delpino.co.kr



BULLETIN

Exhibition



Whisky

최고의 싱글몰트 위스키를 스캔하라

세계 판매 1위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디 청립 125주년을 맞아 100% 당첨 '넘버 원 싱글몰트 위스키'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의 주요 업소·백화점 등 소매점 제외에서 글렌피디 병에 부착된 인증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응모하고 현장에서 바로 경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월 한 달간 선착순 1만 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0개와 스와로브스키 원석으로 만든 사슴뿔 목걸이 9980개가 증정된다. 글렌피디는 보리 100%를 원료로 글렌피디 종류소에서만 숙성한 원액을 담은 싱글몰트 위스키로, 이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만들고 수출한 브랜드다. 문의 02-2152-1600



Gallery

아프리카 어린이를 돋기 위한

자선 전시회
배우 조성하와 화가 이진희가 의기투합해 특별한 전시를 마련한다. 시간을 그리는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진희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배우 조성하의 모습을 포착해 캔버스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을 회화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색다른 시도일 듯.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아프리카 미디어스카르의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사용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를 통해서 모금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배우 조성하와 화가 이진희의 이름다운 동행 展은 12월 1일부터 아트스페이스 아프리카에서 열린다. 문의 031-708-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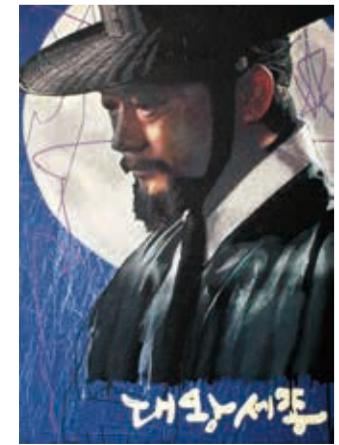
Review

산업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신개념 아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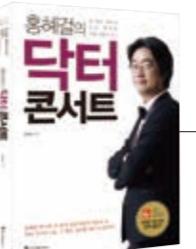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월 청담동 비운드 뮤지엄에서 '브릴리언트 마스터피스' 展을 개최했다. 전시장에서는 사진가 김용호가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담은 29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제목의 '브릴리언트'라는 말을 통해 작가가 상상하는 것은 디아이몬드를 58편의 다변체로 연상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절자티파'의 의지. 전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절자티파'는 자동차 출동 테스트 현장을 포착한 작품으로 수수께끼 같은 자동차 부서진 벽을 마치 추상표현주의 회화와 팝 아트 작품처럼 담아냈다. 이산공장 수밀 테스트장에서 우연히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이번 아트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 사진가 김용호의 시선을 통해 포착된 현대자동차의 이름다움을 표현한 마스터피스로 선보이며 초대형 사진, 미어 아트, 설치 미술 등 대규모 형태로 전시되었다.

렌즈 교환식 시장을 재편할 새로운 강자

올림푸스 OM-D E-M1(이하 E-M1)은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 OM-D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로, 올림푸스 DSLR 카메라인 E-System 시리즈의 포서드 렌즈뿐만 아니라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의 마이크로포서드 렌즈까지 호환 가능한 전천후 미러리스 카메라다. 전 세계 미러리스 카메라 중 가장 많은 렌즈 활용도를 자랑하며, 유얼 AF 시스템에 의해 초당 6.5연사 동체 주적 C-AF(Continuous Auto Focus, 움직이는 피사체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가 가능하다. 또한 방진·방적 기능과 더불어 영하 10°C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을 갖춰 거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6002-3500 www.olympusomd.com



Camera



〈총혜걸의 닉터콘서트〉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기 위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TV조선 매니저 토크쇼 '총혜걸의 닉터콘서트'에서 다뤘던 내용 중 핵심 정보만 글로 담았다. 각 질병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닥터 총의 한 줄 처방'과 '미디어 피싱, 진실을 가린다' 코너를 통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은 궁금해 했던 건강 정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준다. 총혜걸 저, 조선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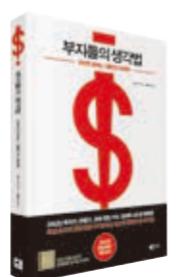
Books

〈인문학은 밥이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인문학 없이 사회적·경쟁적 발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상징적으로 구현했듯, 이제 더 이상 복제 방식과 자식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명제는 인문학이 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연·그리고 밥이 되는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모색을 내포하고 있다. 김경집 저, 알에이치코리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디자일 시대에도 오프라인 매체인 책과 서점이 여전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 유명 서점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깃든 포르투갈 포르투의 '웰루 서점', 세계 각지의 작가 지망생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는 그리스 솔로니섬의 '아틀란티스 북스' 등 아름다운 서점 20곳을 소개한다. 시미즈 레이너 저, 학신문화사



〈부자들의 생각법〉

독자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확실한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3년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 도서에 선정된 책.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산다. 이 책은 이런 차이가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역설적 사례와 경제학, 심리학을 넘나들며 증명한다. 소비 습관부터 주식, 부동산, 노후 대비까지 돈을 벌고, 모으고, 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 하노 빅 저, 갤리온



평생드든서비스는 고객을 직접 찾아와 맞혀진 보험혜택, 놓친 보험금을 쟁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험혜택 잊고 계신건 아닌지 현재 고객님께서 기입하신 보험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놓친 보험금을 모르고 계시진 않은지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청구해 드립니다.
 ►그 동안 탈라진 변화는 없으신지 이사, 연락처 변경 등으로 탈라진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부족하신 보장은 없으신지 원하실 경우 현재 상품의 보장내역을 문의하고 부족한 보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만족센터 : 1588-1001

참고문서

평생 찾아와 날 쟁여줍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쟁여줍니다

잊고 있던 보험혜택, 놓친 보험금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

고객을 찾아오는 평생드든서비스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작해줘서 고맙습니다



KYOB
교보생명

알아보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가치 Audi A8



Audi A8 Experience



V8 엔진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4.0 TFSI quattro, 4.2 TDI quattro

모두가 주목하는 진보적인 디자인 속에는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가치가 숨어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퍼스트클래스의 감각과 다양한 편의기능을 즐길 수 있는 뒷좌석.

420마력의 힘과 8단 자동 변속기의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는 4.0 TFSI quattro와

350마력 8기통 디젤엔진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4.2 TDI quattro까지.

이것이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만 허락된 Audi A8의 진정한 모습이다.

www.audi.co.kr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 아우디 공식 딜러 영업사원 모집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시장

- 한강대로 02)790-1468
- 도곡로 02)564-1468
- 청담 02)516-2468
- 청담 02)3488-7777
- 송파 02)412-3468
- 대치 02)555-3468
- 용산 02)797-1468
- 목동 02)2676-1468
- 동대문 02)2247-2460
- 분당서현 03)713-0001
- 분당수내 03)712-7777
- 양양 03)422-0000
- 일산 03)905-1468
- 인천 032)465-1468
- 수원 031)241-0033
- 천안 041)567-3111
- 청주 043)265-7799
- 부산남천 051)611-3844
- 부산해운대 051)740-5566
- 울산 052)257-3883
- 대전 042)863-8787
- 대구 053)744-7070
- 광주 062)525-8777
- 순천 061)746-7733
- 전주 063)915-0000
- 진주 055)245-2233
- 진주 055)924-0000
- 포항 054)275-0066
- 군산 063)461-0110
- 원주 033)766-7786
- 춘천 033)263-4200

서비스센터

- 대치 02)555-4834
- 성수 02)3425-0033
- 송파 02)400-2834
- 영등포 02)2672-1468
- 서초 02)597-8255
- 용산 02)798-1468
- 분당서현 03)715-8255
- 일산 031)905-1463
- 인천 주안 032)429-1468
- 인천 구월 032)465-1463
- 천안 041)567-3111
- 수원 031)241-0033
- 천안 041)567-3111
- 원주 033)764-8787
- 원주 033)764-8787
- 수원 031)634-0033
- 부산남천 051)628-0056
- 부산민락 051)626-0056
- 울산 052)227-2255
- 대전 042)862-8802
- 대구 053)350-8900
- 광주 062)524-5959
- 전주 063)905-5500
- 청원 055)245-0999
- 원주 033)764-8787

■ 차종 및 표준연비 · 차종명: 아우디 A8 L 4.0 TFSI quattro (배기량: 3,993cc, 공차중량: 2,095kg, 저동8단, 복합연비: 8.1km/l (도심연비: 6.9km/l, 고속도로연비: 10.3km/l), 등급: 5등급, 복합CO2배출량: 222g/km) · 치중명: 아우디 A8 L 4.2 TDI quattro (배기량: 4,134cc, 공차중량: 2,249kg, 저동8단, 복합연비: 11.6km/l (도심연비: 10.1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작성,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